



보 도 자 료



보도 일시 (인터넷) 2022. 1. 27.(목) 12:00 (지 면) 2022. 1. 28.(금) 조간	배포 일시 2022. 1. 27.(목) 08:30		
담당 부서 <총 괄>	담당자	과 장	최보영 (044-203-7141)
코로나19대응학교상황총괄과	담당자	사무관	김미희 (044-203-7146)

외국인 유학생 안전 확보 및 지역사회 감염 확산 방지 - 2022학년도 외국인 유학생 보호·관리 방안 발표 -

주요 내용

- 코로나19 대응 검역·방역 절차 사전 안내를 통한 안전한 입국 지원
- 예방접종 완료 후 입국 강력 권고 및 자가격리 해제 즉시 미접종자 접종 지원
- 정부-대학-지자체 간 유기적 협력을 통한 지역사회 감염병 확산 방지

- 교육부(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유은혜)는 코로나19의 지속 및 오미크론 변이 확산에 대응하기 위해 2022학년도 외국인 유학생 보호·관리 방안을 추진한다.
 - 2020년부터 코로나19 확산에 따라 모든 입국 유학생에게 특별입국절차를 시행하고 있으며, 올해에도 강화된 해외 입국자 관리 조치를 통해 유학생 건강 보호, 안정적 학사운영 및 지역사회 감염 유입을 차단할 계획이다.
- 해외 입국자 관리 강화 조치에 따른 입국과정 전반(입국, 이동, 격리)에 대한 검역·방역 준수사항을 사전에 충분히 안내하고, 입국 후 유학생 한 명 한 명에 대한 꼼꼼한 관리를 함으로써 안전한 입국을 지원한다.
 - 대학은 출발 전 코로나19(PCR) 검사 실시, 입국 후 10일간 자가격리 의무 부과 및 위반 시 제재 조치, 자가격리앱 설치, 방역교통망 이용 의무, 예방접종 지원 등 검역·방역 절차 사전 안내를 철저히 하여 학생 안전을 도모한다.
 - ※ 강화된 방역조치 : 코로나19(PCR) 음성확인서 기준 강화(출국일 기준 72시간→ 48시간 이내), 모든 해외입국자 의무 자가격리(10일), 방역교통망 이용 의무화 등

<입국 단계별 방역 조치>

입국 전	입국 시	입국 후
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■ 코로나19(PCR) 진단검사 실시 ■ 검역·방역 절차 안내 ■ 예방접종 권고 등 안내 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■ 코로나19(PCR) 음성확인서 제출 ■ 건강상태 확인(발열 등) ■ 자가격리앱 설치 ■ 국내 연락처 및 거주지 확인 ■ 자차·방역교통망 이용 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■ 자가격리 10일 ■ 코로나19(PCR) 음성 확인서 제출 (1일 차, 격리해제 전)

- 인천국제공항에 유학생 전용 안내 창구*를 마련하여 방역수칙, 교통수단 등을 다국어로 안내하여 유학생들이 안전하고 편리하게 입국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.
 - * (기간) 2022.2월~9월, (위치) 인천국제공항 터미널 1·2, (운영주체) 국립국제교육원
- 교육부는 법무부, 행정안전부로부터 받은 입국 유학생 정보를 매일 대학, 지방자치단체(지자체)에 제공함으로써 입국과 동시에 지원·관리가 가능하다.
- 대학은 유학생 입국 전후에 연락처, 주소 등 정보 파악, 입국 후 보고 등 연락 체계를 갖추고, 자가격리 기간 중 1일 1회 이상 건강상태 점검(모니터링)을 통해 학생을 체계적으로 학생을 보호·관리한다.
- 오미크론 변이의 확산에 대응하고 유학생 건강보호, 입국과정에서의 감염 예방 등을 위해 외국인 유학생이 자국 내에서 예방 접종을 완료한 후 입국하도록 강력하게 권고한다.
 - 미접종 유학생이 입국할 때는 자가격리 해제 즉시 예방접종할 수 있도록 지자체 및 대학에서 지원한다.
 - 자국 내 예방 접종자는 해외 예방접종증명서를 지자체 보건소에서 등록할 수 있도록 하여 접종증명·음성확인제(방역패스) 운영에 따른 일상생활 확보를 지원한다.
- 정부-대학-지자체 간 유기적 협력을 통해 유학생 방역 조치 이행 및 안정적 교육활동을 지원한다.
 - 대학은 유학생이 분산 입국하도록 유학생 입국 시기관리 계획을 수립하여 지자체와 공유하고, 해당 지자체는 자가격리시설, 관리인력, 방역물품 등을 사전에 대비하여 지원한다.

- 유학생들이 독립된 생활을 할 수 있게 자가격리 장소를 확보한 후 입국 하도록 적극 지도하고, 대학은 기숙사 및 대학 내 유희시설을 우선 활용할 수 있도록 준비하고 수용이 어려울 경우 학교 밖 자가격리 시설 확보를 위해 노력한다.
 - 대학-지자체 간 긴밀한 협업을 통해 사전에 협의하여 방역교통망 이용 등 공항-자가격리장소(거소) 간 이동수단을 지원하고, 다수의 유학생이 입국할 때는 대학이 자체 차량을 지원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한다.
 - 대학은 대면수업 등 학사일정이 확정된 후 입국할 수 있도록 지도하고, 대학혁신지원사업, 근로장학금, 대학 자체 예산 등을 활용하여 방역물품, 예방교육, 수송비, 학생 점검(모니터링) 인건비 등 방역을 지원한다.
- 정종철 교육부차관은 “오미크론 확산으로 확진자가 증가하고 있으므로 국내로 들어오는 외국인 유학생의 건강을 보호하고 안정적으로 학업에 전념할 수 있도록 관리·지원하는 것이 유학생뿐만 아니라 대학과 지역 사회의 안전을 위해서도 매우 중요하다” 라고 강조하며,
- “유학생 안전 확보 및 지역사회로의 감염 유입 차단을 위한 중앙 정부-대학-지자체 간의 공동대응체계가 원활하게 작동될 수 있도록 관련 부처, 대학, 지자체와 적극적으로 협력해 나가겠다.” 라고 밝혔다.

담당 부서 <총괄>	코로나19대응학교상황총괄과	책임자	과 장	최보영 (044-203-7141)
		담당자	사무관	김미희 (044-203-7146)
	기획조정실 교육국제화담당관	책임자	과 장	김진형 (044-203-6771)
		담당자	사무관	전보애 (044-203-6766)
	고등교육정책실 대학학사제도과	책임자	과 장	김태경 (044-203-6249)
		담당자	사무관	김태훈 (044-203-6253)
	고등교육정책실 전문대학지원과	책임자	과 장	이상우 (044-203-6899)
		담당자	사무관	이은규 (044-203-6406)